

토끼와 거북이

어느 따뜻한 봄날, 토끼가 자기의 빠른 걸음을 자랑하며 거북이를 놀렸습니다.

“야, 거북아. 넌 왜 그리도 느리니?”

토끼가 아무리 놀려도 거북이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토끼야, 저기 보이는 산꼭대기까지 어느 쪽이 먼저 올라가는지 겨루어 볼까?” 하고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그런 거북이가 너무도 한심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넌 내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니? 정 그렇게 원한다면 어디 한번 해 보자꾸나.”

토끼는 경충경충 뛰어서 어느새 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는 아직도 저만치 밑에 있었습니다.

“느림보 거북이가 나를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으니, 낮잠이나 한숨 자고 가야지.”

토끼는 풀밭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거북이는 산꼭대기를 향해 앞만 보고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땀이 비 오듯 했지만 쉬지 않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얼마쯤 잤을까요? 토끼가 잠에서 깬 때에는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산꼭대기에서 거북이가 두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만세! 만세!”

주어진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능력이 우수한 이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ウサギとカメ

ある暖かい春の日、ウサギは自分の足が速いことを自慢しながら、カメをからかいました。

「やあ、カメ君、君はなぜそんなに遅いの？」

ウサギがどんなにからかっても、カメは怒りませんでした。

「ウサギ君、あそこに見える山の頂まで、どっちが先に登れるか競ってみない？」とカメが言いました。

ウサギはそんなカメがあまりにも情けなくて、あきれて物も言えませんでした。

「君は私がどれほど速いか知らないの？そんなに望むのならやってみようじゃない」

ウサギはピョンピョンと跳ねて、あっという間に山の中腹に到着しました。うしろを振り返ると、カメはまだまだ下のほうにいました。

「のろまなカメが私を追い付くにはまだ時間がかかるから、昼寝でもして行こう」

ウサギは草むらに寝転びました。それからすぐに眠り込みました。

一方、カメは山の頂に向かい、前だけ見てノロノロと這って行きました。汗が雨のように流れましたが、休むことなく山を登って行きました。どれくらい寝たでしょうか。ウサギが眠りから覚めたときには、日が西の山に沈もうとしていました。

ウサギはカメを探そうとキョロキョロ見回していると、山の頂からカメが両手を挙げて、万歳を叫んでいました。

「バンザーイ！バンザーイ！」

与えられた能力が足りなくても、根気よく努力すれば、能力の優れたものより先に行くことができます。